

목정(섬진강댐)호 수역상생발전협의회 김중연 상임대표는 3일 11시 임실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섬진강 물줄기 이어달라'

농업·생활용수 등 하천유지용수 없어 하천생태계 파괴 대책 마련 시급

목정(섬진강댐)호 수역상생발전협의회 김중연 상임대표는 3일 11시 임실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 순창군민 1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 1965년 섬진강댐건설로 끊어진 물줄기를 이어달라는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혀 임실 순창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섬진강댐저수량 4억6천만톤의 97%를 섬진강에서 동진강으로 유역을 변경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물줄기를 끊어 섬진강댐에서 가까운 임실 순창군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는 물론 하천유지용수가 없어 섬진

강하천생태계가 파괴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댐건설은 국가의 허가수리권에 의해 건설된 것이고, 주민들은 관습법에 따라 하천법제정이전부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섬진강에서 취수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득수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천법 제34조 하천관리청은 댐 등 유수점용허가 시 기득수리권자인 하류지역주민들의 권리침해가 있을 때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댐건설허가 등은 갈수량의 범위(주민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섬진강댐 허가 시 기득수리권자인 임실 순창군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섬진강 물줄기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1979년 당시 건설부가 섬진강하천생태계를 조사해 (건설부 고시 제70호) 섬진강하천유지수량은 평균 강수량에 근거 5.5m/ams /초당5.5톤이 흘러야 한다고 고시했지만 현재 섬진강댐에서 방류하는 하천유지용수는 초당1톤에 불과하다며 국가로부터 섬진강의 건강생태계유지를 위한 물을 배분받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전해 50년 만에 섬진강의 물줄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공모사업 선정 지역발전 '탄력'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선정 · 총 26개 사업 166억원 사업비 확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체계적 전략과 열정으로 노력해 대형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지역발전엔 큰 탄력을 받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연계형 공동주택사업(160억원) 등 25개 사업에 407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7월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30억)'이 선정되는 등 총 26개 사업에 16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군은 연초부터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정목표율 100%로 설정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정부방향에 맞춰 사업별로 고창군민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

또 전북도청을 비롯한 각 기관과 정

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올 1월 쌀경쟁력제고사업(3억8000만원)을 시작으로 2월에는 고창읍성 일원에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자연마당조성사업(55억원),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새뜰마을조성사업(25억원), 3월과 4월에는 한옥자원활용야간상설공연(3억2000만원) 등 주민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선정되어 지역 발전에 효과노릇을 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16억5000만원)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등 군민들에게 매일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특히, 군은 무분별한 사업 공모로

필요한 사업추진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모사업 추진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자체 검증과정을 통해 고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택해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 및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공모를 추진해 연초 목표를 달성했으며 하반기 공모사업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모든 공직자들의 열정으로 땀땀 뚫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선정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앞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확고한 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하반기에도 함께 성과를 이루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한우 배내기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위탁

임실군과 임실축산업협동조합은 3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한우 배내기 사업'의 업무 위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심민 군수를 비롯해 전상두 임실축협 조합장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압송이지 구입 및 입식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인 임실축산업협동조합에 위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발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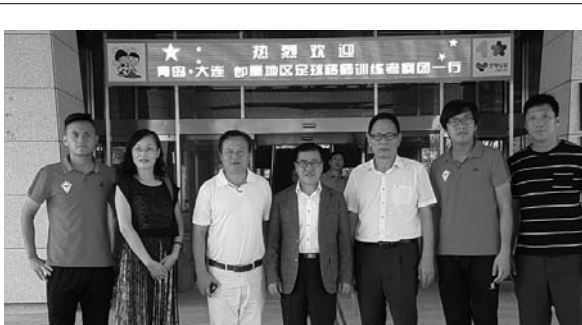
특히, 군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과 조합이 공동 노력하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며, 1차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6명의 어르신들도 함께 참석해 소 대부증서를 전달받고 압송이지 입식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지역사회 활력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기관인 농업과 협력을 통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 배내기 사업'은 노령화

된 농촌에 소일거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압송이지 입식을 지원하고 입식 2년 후 압송이지 가격으로 현금 상환하는 사업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중국 유소년축구팀 전지훈련 답사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 춘향골체육관 등 방문 예정

한국과 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중국 청도, 지무, 대련 유소년축구팀 전지훈련답사단이 남원시를 방문하여 연일 감탄을 자아내고 있어 해외 유소년 축구팀 전지훈련 유치의 청사진이 커지고 있다.

남원시와 우호 교류를 추진중인 중국 청도 과거대 축구단 감독인 국작금(作金) 감독 등이 주축이 된 중국 청도시와 지무(即墨)시 관계자 5명과 중국 대련시 小老虎 축구팀 관계자 2명, 그리고 소화교 교장단 2명을 비롯한 총 9명의 답사단이 남원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6박 7일 동안 남원시에 머물면서 문화체육센터, 춘향골체육관, 다목적 구장, 인공 암벽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며, 또한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전지훈련은 물론, 광한투원과 국악의성지 등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게 되어 중국에 우리의 자연과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계기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체육회와 축구연합회 임원 등은 체육시설 제공과 숙박·식당·쇼핑점 등의 편의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근 남원시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중국 청도 과거대 국작금 감독은 남원은 지리산이 위치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축구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심폐강화 훈련은 물론 기술연마를 위한 전지훈련장으로 최적지라고 보고 있으며, 남원시 및 남원시 체육회에서 연습경기 파트너의 빠른 협의를 통해 실전감각과 실력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고원지대와 평야지대가 이상적으로 발달해있는 곳으로서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7월까지 약 2,600여 명의 전지훈련 선수단이 방문하여 호남권 전지훈련 1번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는 국제대회 유치 및 해외 스포츠 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문화교류 마케팅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원시의 문화관광을 비롯한 모든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치즈과학고등학생 전문성 강화 '주력'

뉴질랜드 방문 현장 실습 등

임실군은 국내 유일의 치즈 마이스터고등학교인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교장 이재전)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군은, 해외 치즈산업 현장 견학을 통해 눈높이를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해 치즈과학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2016 치즈선진국 체험캠프'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7박 9일 동안 청정자연 환경과 유기공업 선진국인 뉴질랜드를 방문해 원유 생산 낙농가, 치즈 제조공장, 유기농 전문학교 등의 견학은 물론 현장 실습을 통해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지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전 한국치즈과학고 교장은

"이번 선진국 캠프를 통해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치즈마이스터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산업에 취업해 세계적인 치즈장인이 될 것"이라며, "미래 임실 치즈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국내의 치즈 제조 및 가공 기술과 해외 기술을 비교하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0년부터 7년 동안 임실치즈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치즈선진국 체험캠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7명의 학생이 스위스, 뉴질랜드, 일본 등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한 바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이등법률상담 서비스

고창군에서 '찾아가는 이등법률상담 서비스'가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이등법률상담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으로 3일 고창전통시장 주차장에서 열렸다.

'찾아가는 이등법률상담서비스'는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역을 이등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찾아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문

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을 1:1로 실시하여 법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법적인 사항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 지금까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1:1로 상담을 해주어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남원시는 6월부터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장구수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남원시지체장애인협회에 요청하면 즉시 현장에 출장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통스쿠터, 전통휠체어를 일정 금액 부품비만 받고 수리해 줌

으로써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보장구 수리에 따른 비용은 수리 서비스는 무료이며,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품비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등록장애인 50%를 지원하고 있다.

보장구 수리 희망자는 남원시지체장애인협회(063-625-1911)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임실군은 보행자용 현수식 도로명판 178개를 설치,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 확충과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천500만원과 군비 1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과 조달구매를 거쳐 설치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당초 사업 계획은 지난 5월 시작해 오는 12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발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달 20일 설치 작업을 마치고 현재는 점검 및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량용 도로명판 위주로 설치돼 보행자가 큰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도로, 골목길 등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로 군민들의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설치로 골목길 등 길 찾기가 쉬워져 군민들이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체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 안내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so.go.kr)에서 검색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인 '주소 찾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신지식농업인에 김재주씨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창군 (원)김재주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999년부터 독창적 농업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농업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우수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해 왔으며 김 대표는 식품가공분야에서 공로와 자질을 인정받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라보리쌀'이라는 신상품으로 전국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당호환자용 보리죽, 보리쿠키, 보리케피 등 시장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농가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청보리밭축제를 경관농업으로 성공시킨 진영호씨(2009)와 포도 한그루에 3000송이를 생산해 내고 있는 도덕현씨(2013) 등이 신지식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재활용품 세외수입확대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7월 20일에 4월 ~ 6월 동안 모든 재활용품 121톤을 수시매각하여 매각대금 2,400만원을 8월30일자로 세외수입처리하였다.

시는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고철류, 플라스틱류, 캔류 등 6종 16품목으로 분리 선별하여 인터넷 매각 공고 게시 후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품목별 예정단가 이상의 최고단가를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내 5개 업체와 도내 1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세외수입 확보에도 기여하며 재활용선별인력 창출의 효과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매립되는 쓰레기양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환경과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될 경우에는 고물로 매립되어버리지만, 모아서 분리배출하면 시의 세외수입 확대에 기여하는 보물이라며 각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